

# ‘고난의 터널’ 조규성… “끝이 보인다”

축협 공식 유튜브서 근황 전해 무릎 수술부터 재활·복귀 되짚어 감염에 2024·25시즌 통으로 날려 “12kg 빠져…살면서 가장 고된 시간 다시 태극마크 달고 월드컵 땀 것”

오랫동안 무릎 부상으로 고생해 온 국가 대표 스트라이커 조규성(27·미트윌란)이 그동안의 재활 과정과 근황을 전하면서 부활을 다짐했다.

조규성은 16일 대한축구협회(KFA)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라운드 복귀를 앞둔 준비 상황과 일상을 공개하고 수술과 재활, 팀 합류로 이어진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조규성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와 경기에서 헤딩으로만 2골을 터트리는 등 강렬한 인상을 남긴 후 2023년 K리그 1 전북 현대를 떠나 덴마크 프로축구 미트윌란으로 이적했다.

그는 첫 시즌에 공식전 37경기에서 13골 4도움을 올리며 성공적으로 유럽 무대에 안착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무릎 수술을 받았고, 3개월 뒤 합병증이 생겨 2024·25시즌을 통으로 날리는 시련을 겪어야 했다.

조규성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5일 열린 프레드릭스타드의 2025·26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예선 3라운드 2차전에서 미트윌란의 출전 명단에 포함됐다.

비록 벤치만 지켜 그라운드 복귀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조규성의 이름이 미트윌란의 출전 명단에 오른 건 지난해 5월 27일 실케보르와의 2023·24시즌 리그 최종전 이후 무려 1년 3개월 만이었다.

조규성은 “2023년 12월 아시안컵을 시작하기 전 메나스커스(반월상 연골판) 절제 수술을 해야 했는데 그걸 안고 6개월을 뛰고 나서 수술하자라고 팀과 결정했다. 그 이후 수술을 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한국에서 수술하고 이탈리아에 가서 재활하다 감염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활하다가 무릎이 붓고 물이 3번이나 찌다. 주사기로 물을 빼다가 감염된 건지 뭔지… 그때 수술하고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데 (체중이) 12kg이 빠졌



무릎 부상으로 고생하던 조규성이 1년 3개월 만에 소속팀 덴마크 프로축구 미트윌란의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규성은 15일(한국시간) 덴마크 헤르닝의 MCH 아레나에서 열린 미트윌란과 프레드릭스타드의 2025·26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예선 3라운드 2차전 출전 명단에 포함됐다. 훈련 중인 조규성. 구단 SNS 캡처

다. 하루에 3~4번씩 진통제를 맞으면서 밤에도 계속 됐다”고 떠올렸다.

그러고는 “그때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조규성은 현재 팀 훈련을 같이 한다. 다만 훈련 막바지에는 따로 피지컬 코치와 훈련하며 오랜 공백으로 굳어진 무릎을 완벽한 상태로 되돌리려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조규성은 몸 상태에 대해 “복귀하는 데 이제 3~4주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느끼기에는 80%

정도다. 이제 마지막 작은 부분들만 잡으면 훈련 전체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영상 촬영 시기를 고려하면 실제 그의 그라운드 복귀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토마스 토마스버그 미트윌란 감독도 조규성의 복귀를 손꼽아 기다린다. 토마스버그 감독은 “팀에 중요한 선수인데 오랫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해 마음이 아팠다”면서 “그의 능력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하다. 강한 플레이를 하고 팀워크도 좋다.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테니 조규성이 다시 경기장

에 복귀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발이었던 조규성은 최근 머리를 삭발에 가깝게 아주 짧게 자르고 눈썹 색깔도 바꿨다. 그는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내 캐릭터를 찾는 느낌”이라며 웃었다.

조규성은 다시 한번 태극마크를 달고 월드컵 무대를 누비는 자신을 그려 본다. 그는 “여기서 경기를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 다시 대표팀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다이얼·연합뉴스

# 선발 데뷔전서 썬기골 도움 손흥민美서도 ‘특급 에이스’

후반 5분엔 선제골 간접 관여 LAFC, 뉴잉글랜드에 2-0 승



손흥민(사진)이 미국 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LA)FC 선발 데뷔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팀의 썬기 골을 도와 리그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공식 최우수 선수(POM-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다.



손흥민은 17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폭스버러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2025 MLS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마티의 슈아니에르의 골을 도와 팀의 2-0 완승에 앞장섰다.

손흥민은 중앙 공격수 자리에서 MLS 선발 데뷔전을 치렀다.

한국에서의 프리 시즌 경기를 끝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과의 10년 동행을 마친 손흥민은 MLS LAFC로 이적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지난 10일 시카고 파이어와의 MLS 데뷔전에서는 후반 16분 교체로 출전해 동점 페널티킥을 유도하고 팀의 2-2 무승부에 이바지했다.

이날 손흥민은 썬기골을 어시스트하고, 그에 앞서 선제골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만점 활약을 펼치며 에이스 노릇을 톡톡히 했다.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후반 추가 시간 상대 미드필더에서 공을 잡고 슬금슬금 전진해 골대 정면 페널티 지역으로 들어갔다.

자신에게 수비 2명의 시선이 모두 쏠리자 왼쪽으로 뛰어 들어온 슈아니에르에게 살짝 공을 내줬고, 슈아니에르가 왼발로 반대쪽 골대 구석에 공을 찰라 넣으며 손흥민의 도움이 기록됐다. 이 어시스트로 손흥민은 MLS 첫 공격포인트를 쌓았다.

# 송성문 “시즌 마치면 MLB 포스팅 신청”

최근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구단과 6년 총액 120억 원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송성문(28·사진)이 구체적인 해외 진출 의사를 밝혔다.

송성문은 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kt wiz전을 앞두고 “(포스팅 신청은 시즌 끝나고 해 볼 생각인데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성문은 올 시즌 11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3, 20홈런, 20도루, 66타점, 75득점을 올린 키움의 간판 선수다. 15일 고척 kt전에서는 시

즌 20호 홈런을 터트려 데뷔 후 처음으로 20홈런·20도루 클럽에 가입했다.

2015년 2차 5라운드 지명을 받고 입단한 송성문은 오랜 시간 주전급 내야수로 활약해 왔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그는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해외 리그 진출 자격인

7개 시즌을 채운다. 송성문은 지난해 전 경기에 출장, 타율 0.340, 19홈런, 104타점을 수확하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스카우트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 다시 새겨보는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중동 건설시장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 건설 도전, 현대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뒤따라간다.

단순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의 위업을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 간부로서 직접 보고 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속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혁신과 성장을 가져왔던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조차도 극찬했다고 알려진 그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감과 용기를 심어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박정웅 지음 | 348쪽 | 25,000원 | 행복에너지

다시 새겨보는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 저성장·고물가·고환율·고실업률
- 고질적 노사갈등
- 고조되는 양극화 갈등
-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노령화 사회
- 폭발적권의 가계부채
- 위험받는 무역수지
- 가속되는 중국의 기술추월

과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가?

그의 재근과 격려와 다그침이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울린다. 출중한 시련에도 불타올랐던 그의 도전정신과 위기에 맞섰던 불굴의 용기, 빛나는 발상력의 기록

**Part 1 멈출 수 없는 도전**

- 01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시대의 ‘이단아’
- 02 ‘바퀴 달고’ 세계를 누비는 국산 자동차의 오늘과 내일
- 03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든 뜨거운 열사의 명 중동 건설시장
- 04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전시장 조선소
- 05 40년 숙원 고로에 불을 당긴 현대 제철
- 06 가슴에 묻고 간 필생의 염원 통일
- 07 중국, 가깝고도 멀 수밖에 없는 나라
- 08 국제무대 등단의 무대 전경련 회장직

**Part 2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놓은 다리를**

- 01 경제성장을 위해 절실했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
- 02 자동차 독자개발을 놓고 벌인 미국과의 비밀 담판
- 03 모두 안 된다던 조선소 발상,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
- 04 석유파동으로 빈사 상태가 된 한국경제를 구한 기상천외한 발상, 중동 건설 진출
- 05 88서울올림픽 유치기 가능하다고 믿었던 천하에 오직 한 사람

**Part 3 그의 정신, 그의 기상**

- 01 통일에 대한 갈망과 집념은 그에게 하나의 신이었다
- 02 정치쇄신, 더 잘사는 사회… 통일을 위해 던졌던 비장한 출사표
- 03 평생 노동자의 가슴을 품고 살았던 ‘성공한 노동자’
- 04 돈 액수의 자릿수보다 쓰임 가치를 쟁겼던 ‘큰손’과 ‘구두쇠’
- 05 앞서는 비결,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 06 피터 드러커 Peter Drucker교수가 본 정주영
- 07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Part 4 인간 정주영**

- 01 정주영 · 이범철, 갈등과 아슬아슬한 화해
- 02 만능 엔터테이너 재벌 총수의 18년
- 03 건강관리 비법과 아킬레스의 건
- 04 단순화와 직관력의 달인